

“問湘-한국미디어아트특별전”

문화적 기초연구

후난박물관 학예연구원

전시의 두 가지 주요 포인트와 스토리 라인 :

1. 후난의 문화인 유물을 미디어아트로 표현
2. 후난과 한국의 문화교류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의 모습 구현

1. 흙과 불의 예술

후난성의 백도, 악주(현 웨양시)의 청자가 한국 전파,

장사요자기(중국 당나라 시대에 번성했던 채색 도자기의 한 종류), 고려청자 등

신안 침몰선 도자기 중 최고급품

대명청화 (명나라 시대의 훌륭한 청화백자를 지칭)

예릉요 (중국 후난성 장사시 지역의 옛 가마터인 장사요(長沙窯)와 함께 언급되는 도자기 가마터 중 하나로, 醫陵(醴陵)이라는 지명을 가진 곳의 도자기)

악주요청유사계반구호



남조(420-589)
높이 29.5cm, 구경 12.8cm, 밑창
12.5cm

악주요청유각연판문접



남조(420-589)
높이 3cm, 구경 12.1cm, 밑지름
5cm
후난박물관 소장
38337

악주요청자연화존



이 무덤에서 출토된 두 점의 연화존은 현재 중국에서 발견된 육조 청자기 중 가장 크고 정교한 한 쌍입니다. 이 청자 연화존은 조각조각 부서지는 방식으로 성형되었으며, 부착, 몰드, 조각 등 다양한 장식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조형은 단정하고 문양은 화려하여 남조 시대의 도자기 제작 공예의 뛰어난 성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화존은 남북조 시기의 독특한 산물로, 대량의 불요소가 농축되어 있으며, 주로 고급 무덤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이는 상류 귀족의 예불용 기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조(420-589)

통고 85cm, 최대 복부 지름 129.5cm, 구경 21cm, 족지름 20.8cm

1972년 장쑤성 난징 동교 기린문 밖 영산량 무덤 출토

난징 시의 박물관 소장품

한국 익산 왕궁리 유적 출토



장사요청유갈록채봉문집호



당 (618-907년)

높이 23센티, 구경 10.7센티, 밑지름 12.3센티
1983년 망성현 서당향 고성촌 남안부리 가마터 출토

장사요청유갈홍채운문집호



당 (618-907년)

높이 19센티, 구경 10센티, 밑지름 10센티
1983년 망성현 서당향 고성촌 남안부리 가마터 출토

장사요청유모인부화인물문호



높이 16.4cm, 구경 5.8cm, 밑지름 9.9cm
1973년 형양시 우물 출토

장사요청유갈반모각인화



한국 출토

아랫입, 배불뚝이, 다릉단류. 두 계와 유하에는 각각 세 개의 모판 무늬가 장식되어 있으며, 유하에는 한 여성이 가슴을 감싸고 베일을 두른 채 몸을 흔들며 포단 위에 서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오른쪽 계에는 첨탑 모양의 건축물이, 왼쪽 계에는 서 있는 사자가 있습니다. 창사요 도자기는 갈색 반점 모티브의 아플리케 장식을 대량으로 사용하며, 문양은 짙은 서아시아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당대 외국 문화의 화려하고 다채로운 축소판입니다.

형저우요우칭유완



오대(907-960)

높이 11.9센티미터, 구경 16.3센티미터,

밑지름 9.3센티미터

이호 선생의 기증

38346

형주요청유집호



북송(960-1127)

높이 18.6센티 밑지름

7.2센티

이호 선생의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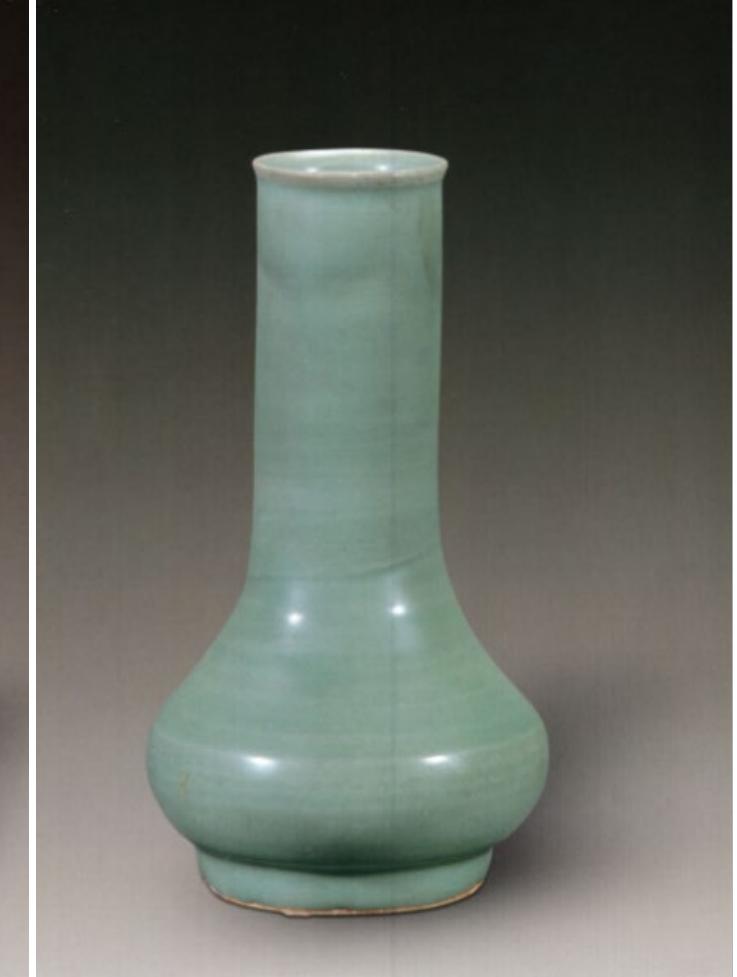
38348

용천요 청유병



남송(1127년~1279년)
높이 14.4cm 구경 5.8cm 족지름 5.1cm
1966년 임상육성 M1 출토
9800

신안 침몰선 출토 용천요자기



남송(1127년~1279년)

고려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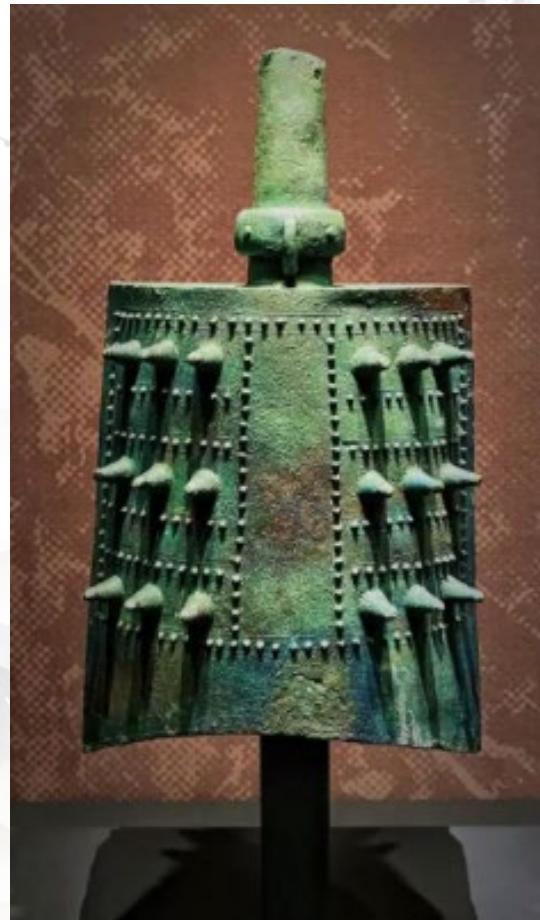
광동 성의 박물관 소장품



清凉寺汝窑（左）和高丽12世纪产品（右）对比

2. 소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

뇨, 종, 거문고, 상강의 화음.



3. 빛의 지향

고대 등기구, 현대 등기구.

4. 아름다움의 추구

화장기구, 동거울, 거울,



소명연호문대동경



한국 경산시 양지리 1호 목관묘역 출토

성운문동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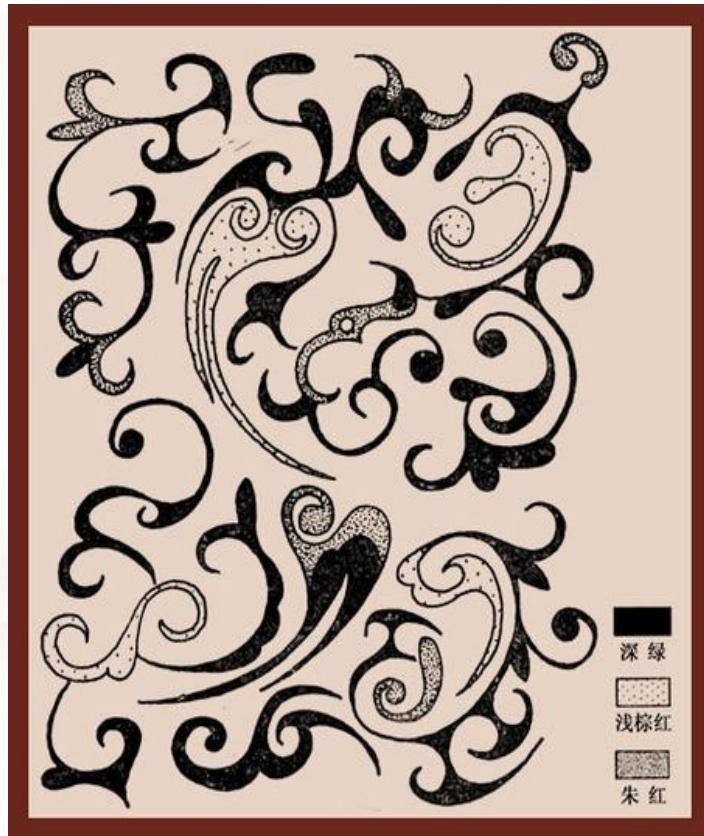


한국 경산시 양지리 1호 목관묘역 출토

5. 문양 전승

봉무구천, 마왕퇴 문양, 민속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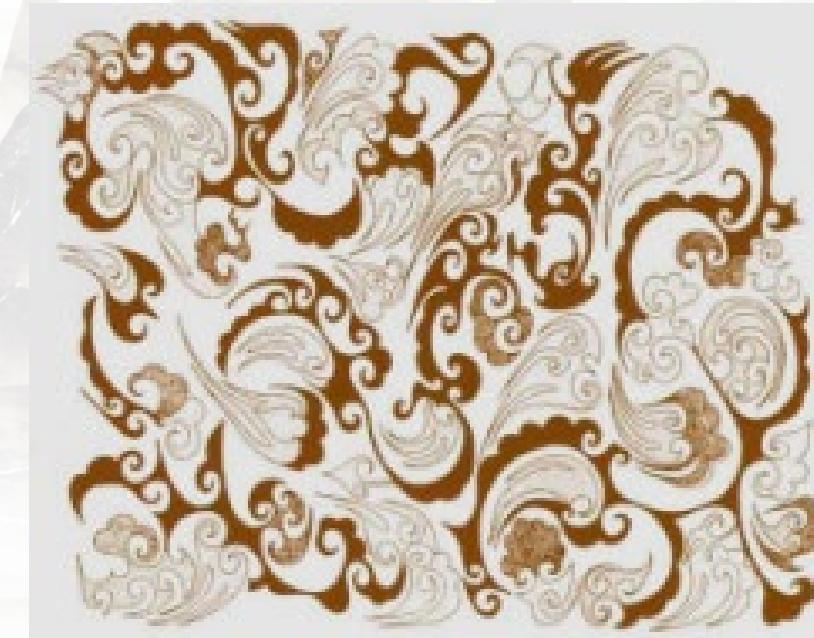
갈색 능직무늬 띠의 "신기수" 명주실면포



편지 자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늬

신기수는 서한 시대 창사 마왕퇴 한묘에서 출토된 자수 품종으로, 그 이름은 무덤 견책 기록에서 유래했습니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문양에서 철새가 "신뢰를 지키며 돌아온다"는 의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수품은 주홍색, 연한 적갈색, 짙은 녹색, 황금색 등의 색실크사를 사용하여 변형된 긴꼬리새와 이삭 모양의 구름 조합 문양을 수놓았습니다. 마왕퇴 1호 무덤에서는 총 19점의 '신기수' 물품이 출토되었으며, 실크 면포, 장갑, 향낭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한대 귀족 의상의 뛰어난 공예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견지의 '장수 자수'



전한
가로 58센티 세로 41센티
신추묘 출토

6. 문자의 변천

김문, 조전, 진전, 한예, 해서, 행서, 초서



한국 경기도 양주시의 대모산성 유적에서 역사적 가치가 큰 유물 4점이 발견됐다.
이 목간들은 한반도 삼국시대의 문화유산으로 확인되었다.

7. 마음의 산수

소상팔경 회화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는 중국 후난성 동정호 일대의 아름다운 여덟 풍경을 소재로 한 그림으로, 중국 북송 시대 송적에 의해 정형화된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도 유행하며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활발히 그려진 대표적인 산수화입니다. 주로 8폭 병풍이나 화첩으로 제작되었으며, 저녁이나 밤, 그리고 가을과 겨울의 정경을 주로 묘사하는 것이 특징

장가계 산수

장가계 산수는 중국 후난성에 있는, 하늘을 찌를 듯한 기이한 봉우리와 암석이 절경을 이루는 풍경을 말합니다. 이곳은 병풍처럼 펼쳐진 독특한 카르스트 지형으로, 마치 한 폭의 산수화 같은 풍경을 선사하여 '중국 산수화의 원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향탕녹수.



아침 해가 옥영하다



昭山孤翠



석고위암





7. 기타 제재

人面纹方鼎



상

높이 38.5, 가로 29.3, 세로 23.7cm, 무게 12.85kg
1959년 호남성 영향에서 출토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면 무늬로 장식된 솥. 후난성 닉샹현 황차이진 탄허리향 승계촌에서 출토, 상나라 후기. 전체 높이는 38.5cm, 입 길이는 29.8cm, 너비는 23.7cm입니다. 색상은 녹색이고 몸체는 약간 직사각형이며 입은 바닥보다 약간 크며 두 귀는 곧게 서 있고 네 기둥 모양이고 발에는 짐승의 표면 무늬가 있으며 몸체의 걸모습은 반쯤 양각된 인면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얼굴 주변에는 운뢰 무늬가 있고, 얼굴의 이마 양쪽에는 뿔이 있으며, 턱 양쪽에는 발톱이 있습니다. 정복 내벽에는 '대화'라는 두 글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어 정자는 대화방정이라고도 불립니다.

상나라와 주나라 청동기는 짐승의 얼굴 무늬를 주제로 한 문양이 비교적 흔하며, 인면 무늬는 비교적 희귀하고 귀중합니다. 이 솥은 네 개의 동일한 인면 무늬 장식 기체의 주요 부분을 사용하여 더욱 독특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그룹의 인면에 발톱이 있지만 몸이 없다고 생각하며, 이는 전설에 따르면 '몸이 없는 머리'와 사람을 탐식하는 흉수 도철과 같은 괴신에 속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사실적인 인면 무늬를 테마 장식으로 사용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예술 형식으로 볼 때, 이 기구는 반복적이고 대칭적인 장식 기법을 사용하여 구성이 치밀하며, 사실적이고 추상적 문양을 결합합니다. 네 세트의 동일한 문양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 장식 주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강한 충격을 주어 특정 장식 효과를 달성합니다. 이는 상나라 후기 청동 제작자들이 이미 강한 사실적 능력과 이미지 요약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豬尊



돼지는 멧돼지 모양으로, 술 그릇으로 존경하며, 돼지의 등에는 타원형의 입을 열고 뚜껑을 열고 배에 술을 담습니다. 남은 손잡이를 덮고 잔존 상황에 따라 봉황새 모양으로 복원합니다. 눈이 똑바로 보이고 엄니가 드러나고 귀가 서 있으며 사지가 두껍고 꼬리가 처집니다. 동물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가축에 속하지 않고, 강력한 야생 수퇘지입니다. 팔꿈치 앞뒤에 각각 둥근 관구멍이 있어 존복을 거쳐 다른 팔꿈치로 직통합니다. 이 튜브는 먼저 주조한 다음 시존판에 설치하여 주조해야 합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 기기는 무게가 30kg 이상이고 부피가 13리터에 달합니다. 가득 차면 혼자 운반하기 어렵습니다. 이 관 구멍이 있으면 밧줄을 끼어 사람이 들 수 있으며, 이 관을 설치하는 목적은 사람들이 운반하기 편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등에 타원형의 구멍이 있어 술의 출입구로 사용되며, 술을 담으면 따라내기 어려우므로 술을 받을 수 있는 숟가락이 있어야 합니다. 돼지의 몸에는 비늘 갑각류, 용무늬 및 수면무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멧돼지를 기물로 만든 것은 현존하는 상나라 청동기 중 단 한 예입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상주 시기의 코끼리 동물이 의사 표현 기능과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예술적으로 사람들의 원시 종교 관념을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역할은 사람들과 신들 사이의 소통 매개체로, 마법과 같은 기도로 액운을 피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대
높이 40센티 길이 72센티
1981년 상담구화 출토